



앞으로 수입닭고기 잠재 시장, “브라질”

편집부

1. 브라질 가금육 현황

2004년 10월 29일 한국의 검역단이 닭고기 수출 작업장 승인을 하기 위해 브라질로 향했다. 자연의 풍요로운 혜택을 받은 브라질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축산 국가로서 2000년대 후반에는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타이슨(TYSON)사의 단 타이슨 회장도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거론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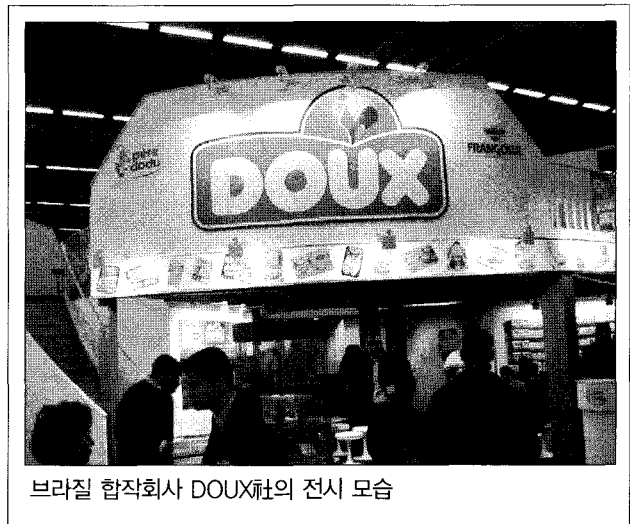
“해외 경쟁 상대인 브라질은 값싼 사료와 부지, 노동력 등을 이용한 효율적 공정으로 일주일에 2,200만 마리의 닭을 가공·처리한다. 이러한 자원적 이점 때문에 결국 브라질이 해외 양계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전, 한국의 가금육 수입국은 미국과 태국이 90% 이상을 점유했지만, 브라질 가금육이 수입될 경우 그 파장은 식품업계 전반에 미칠 것이며, 막대한 시장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세계 속의 브라질의 가금육 현황

브라질은 세계 주요 닭고기 생산 국가로 가금육 생산량은 <표 1>과 같으며, 미국에 이어 최대 가금육 수출국가이기도 하다.

<표 1>에서 보듯이 브라질 생산량은 해외 경쟁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는 60% 정도이나,



브라질 합작회사 DOUX사의 전시 모습

생산 성장률은 타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브라질의 수출량은 미국과 태국과는 최근 3년간 평균 15%이상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브라질의 자연환경은 닭고기와 관계된 질병발생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향후 해외시장에서 2002년과 같은 호황때, 브라질의 생산량과 수출량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주요 국가의 가금육 생산량 (단위: 만톤)

연도 \ 국가	미 국	중 국	브라질	멕시코
2001년	1,400	920	670	205
2002년	1,450	950	750	220
2003년	1,460	980	780	230
2004년(추정)	1,490	1,000	820	240

〈표 2〉 세계 주요 닭고기 수출국가 (단위: 만수)

연도 \ 국가	미국	브라질	EU	태국
2001	250	125	71	42
2002	218	160	84	46
2003	223	192	70	50
2004(추정)	230	210	80	53

2) 브라질의 주요 수출 현황

- 생산량 : 780만톤
- 수출량 : 192만톤
- 수출국가 : 122개국(2003년 22개국 시장개척), 미국의 경우 130개국이다.

3) 주요 수출업체

가. 회사명 : SADIA S/A

- 생산량 : 4억8천만수
- 수출량 : 44만톤

나. 회사 이름 : PERDIGAO AGROINDUSTRIAL S/A

- 생산량 : 4억2천만수
- 수출량 : 40만7천톤

다. 회사명 : SEARA ALIMENTOS S/A

- 생산량 : 2억4천만수
- 수출량 : 30만7천톤

라. 회사명 : MOINHOS CRUZEIRO DO
SUL S/A

- 생산량 : 7천200만수

- 수출량 : 27만톤

2. 브라질의 판매전략

효율적인 공장 시스템, 저가의 노동비용, 혜택 받은 자연환경 등의 영향으로 5년 후에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가금육 수출국가가 될 것이며, 기업의 규모 또한 거대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SADIA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4억8천만수로 한국의 1년 소비량의 대등하며, 연간 44만톤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 약 18만톤을 수출하는 기

업을 토했다. 한국과 무역을 재개 중인 브라질의 대형 수출업체들은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있는 파트너를 조사하고, 수익에 관계없이 물량공급을 할 수도 있다. 브라질의 한 가금육 담당자는 “한국 시장이 개방되면 약 5만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면 10월 검역단이 출국하기 전에 30개가 넘는 브라질 수출업체들이 승인신청을 요청해 왔다고 한다. 교역이 시작되면 국내산 닭고기는 물론 미국과 태국산 수출업체들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되었던 덴마크에 이어 브라질까지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제 3국가까지. 언제든 기회만 되면 국내 닭고기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수입산 닭고기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진정 무엇인지 국내 닭고기 업체에서는 하루 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과잉생산, 소비저하, 과당경쟁...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젠 각 업체와 생산자, 관련 기관·단체 등 모든 육계인들의 힘으로 수입산 닭고기와 맞서서 이기는 것이 우리 육계산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C



브라질산 닭고기 가공품